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2월 ~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캐나다, 부분경화유, 트랜스지방, 중단, 식품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캐나다, 부분경화유, 트랜스지방, 중단, 식품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캐나다 보건부, “모든 식품에서 부분경화유 사용 중단할 것”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캐나다 보건부, “모든 식품에서 부분경화유 사용 중단 위해 노력할 것”

캐나다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자국민의 트랜스지방 섭취 제한을 위해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 의무화, 트랜스지방 프리(trans fat free) 규격 제정 및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소비할 수 밖에 없는 아동 및 청소년,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소외 계층 및 값싼 물건을 찾는 소비자 등 다양한 취약 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4월 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빠른 시일 내로 가공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의 주원료인 부분경화유(PHO)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 보건부는 부분경화유 사용 전면 중단을 위해 ‘식품 오염 물질 및 불순물 목록’에 부분경화유를 18번째 항목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캐나다 식료약품법에 따라 가공식품 분야에서 사용 중단 뿐만 아니라 부분경화유를 사용한 모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캐나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트랜스지방 식품 섭취에 대해 많은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2012년 국민 5만 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하자 심장병 발병률 감소를 위해 식품 섭취에 대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한, 2015년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18년 6월까지 부분경화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퇴출하겠다고 발표하여 캐나다도 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가 의무화된 가운데 부분경화유 사용 중단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면 통관검역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다. 특히, 캐나다 보건부가 바른 먹거리 섭취 장려를 위해 영양 성분표, 식품 첨가제 등 식품 라벨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